

# 여행을 떠나지 않고도 이국적 세계로 갈 수 있다면

## 전남도립미술관 '나는 육조에서 망고를 먹고 싶다'

상상과 허구 사이의 미학.  
전남도립미술관은 현실과 허구를 가로지르는 순환적 내러티브를 통해 확장적 회화를 구축하는 벨기에 출신 작가 리너스 반 데 벨데의 전시 '나는 육조에서 망고를 먹고 싶다'를 오는 8월 18일까지 연다. 이 전시는 글로벌 동시대 미술 플랫폼인 '아트선재센터'의 기획을 시작으로, 서울 아트선재센터와 스페이스 이수에 이어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다.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주로 활동하는 리너스 반 데 벨데(Rinus Van de Velde, 1983-)의 회화, 영상, 조각, 설치 등 독특하고 실험적인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리너스 반 데 벨데는 자신의 작업실 안에서 상상과 공상만으로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의미로 스스로를 '안락의 자 여행자'라 소개한다. 또한 작가는 직접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대신 책과 영화, 뉴스와 잡지, 미술 서적과 역사서 등 다양한 매체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얻으며 이를 작품 속 스토리로 활용한다. 작업 초기에

벨기에 출신 '리너스 반 데 벨데' 공상적 회화·영상·설치 등 선배 작가 도플갱어 '하루의 삶' 눈길 "일상 탈피한 무한한 상상의 힘"

는 주로 드로잉 작품을 선보였지만 이후 회화, 설치, 조각 등 점차 작품 세계의 확장을 이루며, 2019년부터는 가상공간을 배경으로 한 비디오 작품들을 본격 선보였다.

전시의 제목 '나는 육조에서 망고를 먹고 싶다'는 작가의 '나는 해와 달과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육조에서 망고를 먹고 싶다...(2023)'라는 작품 제목에서 인용된 것으로, 이 문장은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 ~ 1954)가 그림 그리기 좋은 빛을 찾기 위해 프랑스 남부로 여행을 떠났을 때 했던 말이다. 이 제목은 문자 그대로, 여행을 떠나지 않고도 자신의 집, 따뜻한 육조에 몸을 담근 채 이국



리너스 반 데 벨데 작 하루의 삶, 단채널 비디오.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적인 세계로 상상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 작업으로 알려진 대형 목탄화 외에도 신작 오일 파스텔화 및 색연필화와 동시에 영상, 조각, 설치까지 최근 신작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세 편의 영상 '마을 사람들(The Villagers) (2017-2019)', '라 루타 내추

랄(La Ruta Natural) (2019-2021)', '하루의 삶(A Life in a Day) (2021-2023)' 작품은 철저히 작가의 작업실 안에서만 촬영된 '스튜디오 영화'로 가상과 현실, 모험과 일상을 드나드는 허구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영화 속 주인공은 작가의 얼굴을 본뜬 마스크를 쓰고서 작가의 도플갱어를 연기하며 가상과 실제, 모험과 일상,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며 저마다의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또한 영상 속 등장하는 장치들은 모두 작가가 직접 제작한 것들로, 이번 전시에서는 실물 크기의 세트장과 다양한 소품을 재현한 대형 설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반 데 벨데의 작업은 상상과 현실, 가짜와 진짜, 미술과 언어 등이 충돌하며 긴장을 일으키고 또 서로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삶과 예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다면적 시야를 열어준다. '나는 육조에서 망고를 먹고 싶다'를 통해 때로는 터무니없는 공상같지만, 때로는 진지한 예술적 고민을 담은 작가의 내적 모험에 동행한다. 작가의 상상적 여행을 통해 익숙한 일상을 새롭게 만드는 상상력이라는 무한한 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는 지 경험해 본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 관장은 "서울에서 개최한 전시를 더 많은 지역민과 향유하여 동시대 미술의 현주소를 폭넓게 이해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며 "작가의 예술 여행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상상력의 무한한 힘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무등의 정신'을 담다

내달 23일까지 국운미술관 '하모니' 김은영 등 8인 참여



이호국 작 나들이. 국운미술관 제공

국운미술관은 무등의 정신을 담은 기획전 '무등:Harmony (하모니)'를 오는 6월 23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6월 1~2일 무등산 중심사지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에 발맞춰 준비한 자리다.

이번 전시에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평등이 이루어져 차등이 없는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등의 정신'을 담았다. 김은영, 김은희, 김진호, 박정연, 변재현, 신철호, 이호국, 조근호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전공인공인, 구상과 비구상, 다양한 경력을 자랑한다. 이들은 무등산을 주제로 한 회화 총 16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무등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자 한다. '공간의 시선'의 김은영 작가, '은유적 시선'의 김은희 작가, '치유의 시선'으로 작업한 김진호 작가, 다른 사람과 교류에서 정서적 환희를 얻는 박정연 작가는 '흔적의 시선'을 가진다.

변재현 작가는 '동적인 시선'을 가지

고, 신철호 작가는 '지질적 시선', 이호국 작가의 '찰나의 시선' 마지막으로 조근호 작가는 '언어적 시선'을 통해 무등산을 표현했다.

전시 기간 중 6월 1일과 2일에 무등산 인문축제 연계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국운미술관 소장품 연계 아트상품 '아낙네 그림책'을 증정하는 행사로 전시를 감상한 후 후기를 작성하면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운미술관은 동구 의재로에 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도선인 기자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전시지원 공모

내달 17일부터 개인·단체 대상

한 졸업생 또는 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시에 등록된 경우다. 제출서류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시 기획서, 작가 약력, 작품 이미지 등이 포함된 포트폴리오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6월 28일이다. 최종 선정되는 작가와 단체는 갤러리(416m) 무료 대관과 작품 설치 및 리플렛 제작 등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s://gjart.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예술의전당은 2025년 갤러리 전시 지원 공모전에 참여할 작가 및 미술단체를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모한다.

모집 분야는 시각예술 전 분야다. 모집 인원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또는 미술단체 총 10명(팀)이다.

자격요건은 단체는 창단 1년 이상, 단체전 3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인(작가)은 개인전 3회 이상, 광주 소재 대학에서 미술 관련 분야를 전공

## 내달 영아 대상 '얼굴과 얼굴...' 유·초등 대상 '마법의 샘' 공연

"6월 한 달 동안 우리 아이 성장과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공연을 만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은 오는 6월 영아대상 공연 '얼굴과 얼굴-마주;봄'과 유·초등 대상 공연 '마법의 샘'을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잇따라 선보인다.

1세를 위한 공연 '얼굴과 얼굴-마주;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 얼굴 보는 것을 좋아하는 아기들의 특성을 활용한 공연이다. '얼굴'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인형과 오브제를 사용해 사람과 사람의 첫 만남을 연극으로 표현한다. 공연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갖춰지지 않은 12개월 이하 아이들이 말보다는 청각·촉각·시각을 통한 감성 자극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극장 무대 위에 객석을 마련해 아기 관객들이 공연 중 자유롭게 무대를 돌아다니며 설치미술과 소리, 움직임이 어우러진 공간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을 통해 영아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적 자극을 제공할 예정이다.

'얼굴과 얼굴-마주;봄'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ACC재단은 영아대상 공연 '얼굴과 얼굴-마주;봄'을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ACC재단 제공

3시에 공연되며, 관람료는 체험석 2만원, 마주봄석 5천원이다. 6월 14~15일은 12개월 이하, 16일은 12~18개월 영아만 관람 가능하다.

이어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마법의 샘'을 공연한다. ACC 아시아 이야기 그림책 '마법의 샘: 타지키스탄 옛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눈 먼 소년 바흐토바르의 눈을 뜨게 해준 신비한 마법의 샘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그림자 퍼

포먼스, 샌드아트, 음악과 연기의 조화를 통해 왕과 공주, 바흐토바르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다채롭게 표현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가슴 따뜻한 삶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마법의 샘'은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관람료는 1만 5000원이다.

이번 '얼굴과 얼굴-마주;봄'과 '마법의 샘' 공연 관람권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http://www.accf.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